



서비스업

# 친절한 마음 봉사하는 인생

## 사랑의 이발사 차재운

대를 이어 38년 동안 이발업에 종사하며 의정부에서 '신신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차재운, 희운 형제. 차재운씨는 건전한 이발문화 정착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고 활발한 지역활동을 통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이발사다.

## 친절한 집배원 전금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과 봉사이다. 밥 한끼 제대로 먹지 못한채 소식을 전하지만 그녀의 이륜차에서는 사람냄새가 난다. 푸짐한 인정을 담뿍 담아주는 손길엔 분명 남과 다름이 있다.

사랑의 이발사 차재운



# 형과 아우가 엮어가는 38년 빛과 가위의 이중주



대를 이어 이발관을 지키며 의정부 주민들의 마음속에 이웃사랑과 봉사의 불

한 가지에 나고도 서로 갈 곳을 모르는 것이 인생사 이라면 평생을 한 직장

씨를 심어주는 재운, 희운 형제. 멀어져 가는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이발소로

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길을 가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빛나는

되돌리고, 고객만족의 철저한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5시 출근, 9시 퇴근하는

무대도, 환호하는 관객도 없지만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이젠 불우한 이웃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일신우일신하는 신신이발관의 형제 이발사.

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가위손.

## 형은 엄지, 동생은 인지가 되어

엄지와 검지의 섬세한 손길 위에서 춤을 추는 가위. 두 개의 가위날 사이로 부서지듯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하얀 가운 위로 검은 눈이 내리듯 머리카락이 쏟아지면 거울 속의 얼굴이 비로소 제 모습을 찾는다. 가위의 두 날이 맞물리지 않으면 털끝 하나 자를 수 없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의 절묘한 호흡이 아니면 손님의 머리는 원하는 모양새를 이룰 수 없다. 형님이 엄지가 되고 아우가 검지가 되었다. 때로는 아우가 엄지가 되고 형님이 엄지를 받쳐 검지가 될 때도 있었다. 그렇게 38년 신신이발관에는 형제가 함께 부르는 사랑과 봉사의 하모니가 그칠 날이 없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멋들어진 가위질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메마른 인정에 단비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 의정부역전 앞에서 형제가 함께 대를 이어 38년째 '신신이발관'을 운영하며, 사회봉사와 지역사랑을 발휘하며 2000 경기 으뜸이로 선정된 차재운(58)과 동생 차희운(54)이 바로 그들이다.



## 사랑의 가위로 세상을 아름답게 손질한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지역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사랑과 봉사의 전도사 차재운.  
거리 곳곳을 누비며 점점 사라져가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지역 주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삶은 아름답다.

## 노래마크 대신 가위를 잡은 두 형제

교사였던 부친(차석재, 90)이 부산 피난 시절 생계를 위해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재운, 희운 형제는 이용업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젊은 시절, 두 형제의 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려서부터 준수한 용모와 타고난 끼로 가수로의 희망을 키우던 재운과 음악에 심취하면서 기타와 여러 악기를 연주하던 희운은 연예인의 길을 걷고자 했다. 18살 때는 MBC 방송국에서 8개월 가량 전속 가수생활을 하며 가수의 꿈에 한껏 부풀었던 두 형제. 그러나 큰형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두 형제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님이 죽자 집안의 맏이가 된 재운은 아버님이 운영하던 이발소를 도와야 했고 이러한 형님의 뜻을 따라 동생 희운도 함께 가위를 잡게 되었다.

71년 의정부로 다시 이주한 그들은 지금의 자리에 신신이발관을 열었다. 빛나는 무대도, 환호하는 관객도 없었지만 두 형제는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성실과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이발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이발사가 되리라 다짐했다. 64년 이용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85년엔 이용사 1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내면서 이제 이용기술로 으뜸이가 된 것이다.



젊은 시절 타고난 끼와 노래실력으로  
가수를 꿈꾸었던 차씨 형제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마이크와 기타 대신 빗과 가위를 잡고  
38년 이발사의 길을 걸어왔다. 대외활동에 바쁜  
형 재운씨를 위해 묵묵히 이발관을  
지키는 동생 희운씨. 그래서 두 형제는  
신신이발관의 왕금콤비다.

## 가운을 벗으면 이웃사랑, 지역사회사랑의 전도사

세월이 변해도 손님들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정신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차재운. 미장원으로 가는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이발관으로 되돌리려면 남성들의 머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이발소의 서비스질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두운 실내, 천편일률적인 스타일, 퇴폐업소로 실추된 인상 등 그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던 이발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맞춰야 한다고.

자기 업소의 이윤만을 위해 퇴폐와 변태 영업도 불사하는 몇몇 이발관 때문에 전체 이용업계의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운씨는 건전한 이용업 문화 정착을 위해 직접 대외활동에 앞장섰다. 이용협회 중앙회 부회장, 경기도 이용협회 회장, 이용사회 의정부지부장 등 이용업계의 중추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친근한 이발소,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발소로 거듭나기 위해 후배 이발사들을 독려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정부지역에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차씨 형제의 삶이 돋보이는 것은 비단 뛰어난 이발 솜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벌써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벌여온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한다. 임영장병들을 위한 무료이발, 노인과 장애인 등 불우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때로는 주변 이발관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했지만 지금도 일년이면 서너 차례 구리 장애자복지원을 찾아가서 무료로 장애아들의 머리를 깎아 주며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차씨 형제의 삶은 늘 이웃과 함께 있다. 의정부 지역 뿐만 아니라 멀리 구리 장애자복지원까지 방문하여 무료 이발을 한 지도 벌써 10여년. 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여 삶이 즐겁고 인생이 보람된다는 두 형제. 지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들의 예술무대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은 딱스한 마음을 지닌 사랑의 가위손이라 할 수 있다.





## 머리를 다듬으며 손님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하루종일 서서 가위질을 하며 까다로운 손님들의 요구를 맞추어야 하는 이발사. 하지만 두 형제의 얼굴엔 언제나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다. 신신이 발관 서비스 정신의 으뜸은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고객 사랑의 정신. 술이 잔뜩 취한 채 막무가내로 머리를 잘라 달라는 손님, 때론 잠이 든 사이 이발이 끝나자 먼저 요구한 모양새가 아니라고 화를 내는 손님 등 돌아보면 형제 이발사를 힘들게 하던 고객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들 모두 신신이 발관을 사랑하는 단골고객으로 이곳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 38년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 곳에서 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두 형제는 서로에게 그 공을 돌린다. 가족 사이라도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법정 싸움도 불사하는 각박한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도 향기로운 형제애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활발한 대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묵묵히 형의 빈자리를 메꾸어 준 동생 희운씨의 배려 덕분이라고 형 재운씨는 늘 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비람직한 모발관리

올바른 모발관리는 모발에 손상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발과 두피를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빗을 때 언제나 두피에서 모발 끝 방향으로 빗어서 기름기가 골고루 코팅되게 하는 것이 좋다. 두피나 모발은 세정을 충분히 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만약 비듬이나 기름기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제거되지 않는다면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피부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머리감기는 보습효과가 높은 샴푸를 선택하여 주 2-3회 정도가 적당하다. 린스후에는 곧바로 깨끗이 헹구어 주어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 젖은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되도록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모발이 많이 손상되는 것은 높은 온도와 자외선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필요한 수분까지 증발해 버림으로써 여름철 햇빛에 노출된 것 같은 머리카락 증상이 따른다.

젖은 퍼머와 머리 염색제 사용은 자극적 물질이 두피에 각질을 만들고 모공을 통해 모낭 및 모유두에 내려가 털을 자라게 하는 모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젤·무스 같은 스타일링제는 모발에 손상을 주는 성분이 있으므로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하고 모발 끝에만 사용하되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 했던가. 차씨 형제의 대외봉사활동은 그저 걸치레가 아니다. 차재운은 집안의 맏이로 아래 동생 넷을 모두 교육시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책임져야 했고, 지금도 90세 부친과, 81세의 노모,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장모님과 함께 3대의 대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로하신 몸으로 직접 이발소 경영에 가르침을 주셨다는 부친. 형제의 지극한 효성은 장가가서도 잘못하면 어김없이 회초리를 드셨던 엄부로부터 물려받은 어른 공경의 정신때문이라고.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며 효자 이발사라는 주위의 칭찬에 손을 내젓는다. 그래서인가. 그의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의 재능과 정신을 물려받아 곱게 자랐다. 딸(옥환, 25)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현재 이태리에서 유학 중인 성악영재이며, 아들(27, 태환)도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역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뜻다 이룬 꿈을 그 자식 대에서 꽃 피우고 있다.



88년 올림픽 당시 거리 질서 요원으로 활동 중인 차재운씨. 그에게 지역봉사활동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깨우쳐 준 소중한 순간들이다.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신신(新新)이발관

대를 이어 이발관을 지키며 의정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웃사랑과 봉사의 불씨를 심어주는 재운, 희운 형제. 멀어져 가는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이발소로 되돌리고, 고객만족의 철저한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5시 출근, 9시 퇴근의 일상 속에서도 일신우일신하는 신신이발관의 형제 이발사. 한 가지에 나고도 서로 갈 곳을 모르는 것이 인생사라면 평생을 한 직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길을 가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찾아가는 길**

의정부 남부역에서 500m  
의정부 제1시장 국도극장 앞

**가볼만한 곳**

망월사, 원도봉산, 회룡사,  
김구선생 필적 압각문, 함태영선생묘



친절한 집배원 전금순



# 내 편지엔 E-mail에 없는 것이 있다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의 클릭 하나만으로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메일이 편

커다란 선물보다 말없이 건네는 할머니의 인정이 더 크게 다가왔다. 친절과 인

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그리워 한다. 모니터에 보

정을 함께 배달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륜차 가득히 우편

이는 기계가 전해준 내용보다 푹푹 눌러 마음까지 함께 담은 글이 훨씬 살가

물을 싣고 달린다. 비포장도로의 쿵쾅거림보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운 것이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어머니로서 아내

의 마음에서 나는 콩닥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좀 더 속도를 내어본다.

로서의 자신에서 전금순은 집배원이라는 또다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들의 웃음을 더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기 때문이다.



##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경제위기의 긴 파고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역 앞에 가보면 인생을 포기한 듯한 사람들이 모여 환한 대낮에 소주를 기울이거나 햇살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일을 하지 못해 절망하다 아예 일을 하려는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 그런 생활을 몸에 익혀 버린 사람들이 그들이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은 타자가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사회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인식이 변하면서 현대는 다원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자신의 일을 찾아 보람과 행복,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집을 가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운 지 몇 해 전금순(37)은 자신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9세라는 늦은 나이에 일을 찾기 위해 꿈꿈이 생각하던 그는 나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집배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과감히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포천 최고의 집배원이 되는 출발점은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비범함은 평범함 속에 있고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고 가정에서 매몰되기 보다는 자신의 일을 찾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세계의 구축이었다. 그때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행동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전금순은 아마도 그저 그런 우편배달부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일은 없다.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하루

오전 7시 30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체국으로 향한다. 항상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 발길을 떼기 쉽지 않지만 오늘도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굳건해지려 애쓴다. 7시 50분 포천우체국에 도착하면 어제 못다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등기정리를 해야 하고 1차 배달을 나갈 지역의 우편물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기를 1시간. 1차 배달을 나갈 시간이 된다. 정리한 우편물을 커다란 바구니에 담고 끌고 나와 조그만 이륜차에 실어 놓는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편물은 이륜차 앞에 싣고 좀 더 멀리 가야할 우편물은 뒤에 싣는다.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가다 시골길에 접어들면 마치 크로스컨트리를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포장도 안된 흙 길에 높은 경사가 힘겹게 느



전금순의 책상, 이곳에서 우편물의  
세부정리가 이루어진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라는  
모토를 충족시키는 전금순의  
업무능력이 쌓여간 곳도 이 자리이다.

꺼지기도 하지만 눈 쌓인 겨울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속도를 높여 나가보지만 시골길은 늘 힘겹기만 하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1차 배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배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체  
우체  
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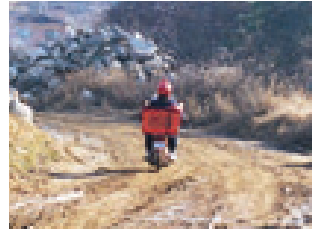
에 뭐를 넣을까?  
엔 뭐가 담겨 있을까?  
에는 그리움이 있지 않을까?

우체국에 돌아오면 시간은 오후 10시가 된다. 의정부 집중국에서 온 우편물들이 책상 가득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빠른 우편과 등기는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물건들이다. 내가 늦으면 바로 전 우체국과 직원들에게 누가 되기 때문이다. 첫 배달에서 남은 우편물들과 다시 정리한 우편물을 합친 양은 이륜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것을 배달 지역의 순서에 맞추어 싣고 다시 두 번째 배달을 나간다. 두 번째 배달은 저녁 6시까지 해야하는 장시간의 업무이다. 혹여 운 좋게 밥을 먹는 자리가 있으면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유와 빵 한조각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잊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한 술 뜨고 가라는 이웃같은 고객의 마음이 따스할 뿐이다.

저녁 6시가 되면 고단했던 배달도 끝이 난다.

저녁이라도 맛난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바쁜 우체국의 사정상 외식은 생각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를 뒤져 음식을 주문한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우편물의 구분, 일이 끝나고 나면 시간은 저녁 10시가 넘기 일쑤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포장도 안된 선길을 달려  
편지를 전달한다. 우편물이  
가야할 곳이라면 전금순은  
어떤 길여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정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체통과  
우체부의 복장. 우체국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올림픽의 구호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이다. 하지만 집배원의 능력을 재는 척도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시일을 지나 배달된 급박한 우편물들은 의미가 없다. 엉뚱한 곳에 배달되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우편물들도 의미가 없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자세와 고객과의 친화이다. 그 속에 일에 대한 열정이 함께 해야 함은 물론이다.

처음 전금순이 집배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배달 업무가 맡겨진 지역은 송우리였다. 우편함 하나 없는 지역에서 배달의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 그때 전금순은 오일통을 오려 직접 우편함을 만들어 집집마다 달아 주었다. 그것이 10년전 일이다. 그저 불평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70~80km에 이르는 거리를 오가며 1,200여 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한 배달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친해져야만 한다. 도시와 다른 농촌의 특성상 여러 가족이 한 번지를 쓰는 경우도 많고 돌림자를 쓰는 집안인 경우에는 누가 누구의 집인지 난감해질 때가 많다. 게다가 자신에게 고정된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지역을 순환시키는 우체국의 특성상 모든 사람의 집을 일일이 외운다는 것도 쉽지 않다. 전금순도 2달 전까지 마산리와 가전리 지역을 담당했지만 지금

### 최초의 우체국과 우정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은 우정국이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이어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등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우편사업의 실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때 일본과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홍영식의 노력으로 고종 21년(1884) 4월 22일에 우정총국이 설치되었다. 이튿날 홍영식을 우정총관에 임명하여 개국준비에 착수토록 하였으며 같은해 4월 일본, 영국, 미국공관에 우정총국 설립사실을 통고하였다. 곧이어 일본과 홍콩 우정국과 우편물 교환 약정을 맺는 한편, 6월 8일에는 우정총국 신설에 따른 조직 편성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직원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7월 1일 일본인 2명을 고용하고, 10월 9일에는 이상재·남궁억·신낙균 등 14명을, 10월 21일에는 성익영을 우정총국 사사로 임명하였다. 각종 우정규칙과 장정을 상주하여 10월 29일에 국왕의 재가를 얻고, 11월 17일에는 각과의 업무분장 및 입직절차를 결정하여, 11월 18일 5문·10문 2종의 우표가 발행되면서 한성-인천간의 우정업무가 개시되었다.

우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정박물관은 서울중앙우체국 신관 4, 5층에 자리하고 있다. 중앙우체국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 오른쪽 계단을 오르면 우정박물관으로 갈 수 있다. 4층은 통신의 역사, 우체통의 변천, 우체부 복장 등이 전시되어 있고, 5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우표들을 구경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이고 국·공휴일은 휴관이다.

은 직두리·상성북리·하성북리 지역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낯설은 지역을 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달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선을 파악해야만 뒷걸음질 치는 법 없이 효율적으로 우편물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편배달에 있어 전금순만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노인들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르는 집과 사람이 있어 난감 할 때 노인정은 문제를 해결 해주는 지역정보제공처가 된다. 시골에 덩그러니 남겨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늘 말상대를 그리워하게 마련이며 그들에게 다가서는 전금순과 같은 집배원은 늘 반가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말을 물으러 간 노인정에서 직접 편지를 전해준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 함께하는 사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즉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메일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펜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 마우스의 클릭 하나만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편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내음을 그리워한다. 모니터에 보이는 기계가 전해준 내용보다 꼭꼭 눌러 마음까지 함께 담은 글이 훨씬 살가운 것이다. 그리고 그 살가움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편지를 전해주는 집배원의 마음이 고마운 것이다. 김장을 담다 편지를 전하는 집배원에게 배추를 뜯어 한 움큼의 속을 넣고 싸주는 그 맛이 그리운 세상이다.

전금순은 이야기한다. 커다란 선물보다 할머니가 건네는 작은 선물이 그렇게 가슴에 다가왔다고 말이다. 친절과 인정을 함께 배달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손님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세 번까지는 죄송하다는 말로 손님을 이해시키려 하는 자세, 세 번이 지나서야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는 정신, 이것은 한 우편배달부가 보여준 서비스 정신의 정화라 할 것이다.

어머니를 이해하는 아들과 딸들,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 그리고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더 많은 으뜸이를 보고 싶다.

**찾아가는 길**

포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 포천우체국

**가볼만한 곳**

백운계곡, 산정호수, 영평팔경, 베어스타운, 서운동산